



◀새로 조성된 고려대장경 동판 경판 견본. 경판 1장의 무게는 목판(3.5)보다 무거운 4.5이며 목판색에 가까운 진박색이다.

팔만대장경 동판으로 조성

해인사 2005년까지, 11월 17일 고불식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군신과 유생, 불자, 토속신앙인등 불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한 국가의 문화재인 만큼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들까지도 십시일반 동참을 요청한다"며 "11월 17일 고불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서 국난을 극복

"국가적 문화재, 국민들 십시일반 동참을" 2장 1세트... 사찰·가정에 나누어 봉안

하기 위해 고려 고종 23년(1236년)부터 16년의 불사공에 완성한 고려 대장경이 새롭게 동판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현재 목판의 수명은 233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활용도 쉽지

않은 상태다. 해인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는 동판 대장경은 일본 신수대장경과 중국 대장경 등에서 빠진 경전과 고려까지 역대 조사스님의 어록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가로 69.7cm, 세로 24.2cm, 두께 3.6

cm의 목판 크기로 제작된 동판 고려대장경은 인형동(인)이 접기되어 산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동을 사용하여 1만년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동판 대장경 제작은 우연MS(주)가 맡았다. 해인사는 고려대장경 동판을 2개 1세트로 제작해 한 장은 사찰에 모시고, 다른 한 장은 집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055)934-3031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지식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전국 비대위, 원호터널공사 금지 가처분신청

인간이 아닌 도롱뇽이 원고가 되는 '도롱뇽 소송'이 시작되면서 천성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10월 15일 도롱뇽과 그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을 원고로 부산 지방법원에 경부고속철도 13공구

원호터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법무법인 청룡을 통해 "피신청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호 터널공사(13.5m) 및 기타 이외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요

지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롱뇽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지울스님을 비롯한 3인의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각종 법정 보호종들과 멸종위기종의 권리를 회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는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는 원호터널 공사와 관련 사업계획 승인의 위법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절차상의 하자 △전문사찰보존법 상의 전문사찰 대표자와의 협의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 동의절차 생략 △습지 주변관리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 이행 등을 들어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도롱뇽 소송이 본격화되자 천성산 비대위는 11일 도롱뇽의 날 선포식을 갖고 여론환기에 나서는데 한층, 향후 도롱뇽 캐릭터 개발, 도롱뇽 소송 후원인 모집, 재정 마련을 위한 불자 후원인 모집 등으로 관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천5백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상량

조선 초기양식... 덕수궁 중화전과 흡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스님)은 10월 12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인양 본원, 뉴욕, 대구, 광주, 강릉 등 지원의 지원장 스님과 신도 등 2천 5백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량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상량 의례, 상량 발원문, 상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원장 해도스님은 상량 발원문을 통해 "오늘 깊고 간절한 마음의

불씨 한데 모아 발원하오니 원컨대 이 법당 세세생생 마음의 불씨 이어가는 도량으로 일체 생명 해탈하는 우주법계의 근본 도량이 되게 하여 지이다"라고 원만한 불사를 발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은 조선 초기 전통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덕수궁 중화전과 흡사한 5랑 팔작 지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인 대목장 최기영 씨가 맡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용산사 수행환경 파괴 선학원, 법적대응 나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청도 용산사 수행환경 파괴와 관련한 피해보상 요구가 묵살되자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제4공구 도로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 지방법원에 최근 접수했다.

선학원은 신청서에서 "사찰은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로가 건설되면 지속적인 소음과 먼지, 환경훼손으로 인해 사찰기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 하라"

지식스님, 양산시청앞서 무기한 단식

'초산유원지 개발을 완전 백지화 하라'라는 문구를 뒤로하고 지식스님은 양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중이다. 15일로 단식 10일째다.

통도사환경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초산유원지 공사현장을 막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통도사 강원 학인 지식스님이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1만 3천 평 규모로 파헤쳐지고 있는 초산유원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통도사 환경위원회 스님들은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를 막아왔고, 지식스님도 매일 1천2백배를 하며 공사를 막

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도사 환경위원회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양산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중인 지식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진적 성지인 통도사 인근에 숙박 시설, 음식점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것은 불교문화 탄압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허가 당사자인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돼 양산시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됐다"고 단식 이유를 밝혔다.

지식스님은 또 "29만평으로 계획된 초산유원지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미희 기자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를 위해 양산시청 앞에서 단식중인 지식스님.

'한국불교삼보사찰과 5대 적멸보궁'에 관해, 이규찬(해운대초등 5) 학생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화를 조명했다. 최광호 법사는 "내년에 한국에서 '제32회 한·일 어린이 불교심포지엄'이 열린다"며 "심포지엄은 양국의 불교문화 공부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월산대중사 열반6돌 불국사에서 사리함봉안



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성립당 월산대중사 열반 6주기를 맞아 불국사에서 10월 14일 사리함 봉안식이 열렸다.

월산스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봉안식은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월산문도회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불국사 사천왕문 옆 부도탑 공사현장에서 봉행됐다.

사리함은 전통속공예가 최광웅씨에 의해 3년여에 걸쳐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사각형의 금제 사리함에 넣어져 둥근 공이 범종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의 대형 부도탑에 봉안됐다. 박원구 기자

뿌리 깊은 종단, 화합된 모습으로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 취임법회

삼보에 귀의 하옵고,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격려 속에서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임법회는 단순한 주지 취임 법회가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법석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회환이나 화분을 쌓고 김장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취임법회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로 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례화 되었던 화환, 화분 등 축하용품은 절대 사절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쌀과 김장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시: 불기 2547(2003년) 10월 24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남양주시 봉선사 큰법당
- 문의: 전화 (031) 527-5974, 1951 / 주지실 (031) 527-5972
- 동참금: 쌀 1가마 일십만원 / 김장 1독 칠만원
- 계좌번호: 농협 204064-51-001470 / 예금주: 봉선사 종책연구실
-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종책연구실: (031) 527-3224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주지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우편번호: 472-864 팩스: (031)527-1958

*동참자 명단은 11월 7일자 불교신문에 게재합니다.